

간결하고 부드러운 현장감 ‘디카詩의 울림’



무등디카시촌, 7~13일 작품전
디카사진·시 접목...SNS 소통

스마트폰 일상화와 맞물려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술 장르가 바로 ‘디카 시(詩)’다. 디지털 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과 시를 접목한 디카시는 누구나 감성을 담은 시를 선보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화자의 감성을 응축해 담기 때문에 간결함과 현장감이 두드러진다. SNS 등을 매개로 쌍방향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은 디카시가 지닌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디카시가 전하는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전시가 열릴 예정이다. 눈길을 끈다.

무등디카시촌(회장 조필)은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전시관서 작품전을 연다. ‘디카시의 울림’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울림을 찾아가는 디카시의 여정에 초점을 맞췄다. 모두 30여 명의 시인들이 참여했으며 광주디카시인협회가 주관하며 광주문화재단이 후원한다.

울림은 소리로 들려오는 외부적인 음향뿐 아니라 내면에서 번져오는 느낌을 포괄한다. 디카시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울림은 사물과 대상을 보는 이의 내면에 따라 다르지만 작품을 바라보는 관람객 관점에 따라라도 각기 상이하다.

조필 회장은 “보지 않으면 만날 수 없고 만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며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만나야 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고 전했다.



나비 당신

색동옷 꽃신 신고
꽃길이라 걸어온 길
수만 송이 꽃 향기 피웠으니
희고 노란 날개 나비되어
다시 돌아 노닐었으면..

변태섭

이러 ‘디카시는 언어예술이라는 기존 시의 카테고리를 영상과 문자의 멀티 언어로 확장한 것’이라며 “이번 전시가 더 많은 독자와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출품한 작품들의 소재와 영상도 다채롭다. 전시에서는 위혜숙의 ‘청어의 화주’, 김형순의 ‘어머니의 단상’, 강영준의 ‘그네의 유배지’, 김성룡의 ‘별천지’, 변태섭의 ‘나비 당신’, 오종희의 ‘담대하게 가라’, 이선근의 ‘우주의 소리’, 조형연의 ‘속마음’, 조형연의 ‘붉은 문’ 등을 만날 수 있다.

김방순의 ‘울림’은 성당을 배경으로 놓인 기타를 조점화한 작품이다. “청량한 바람 소리/ 지저귀는 새소리// 내 마음 숲 속에 번지는 맑은 소리/...당

신!” 시인은 바람과 새 소리보다 마음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의 실체에 주목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당신’으로 인한 울림이다. 당신은 절대자일 수도 있고 특정한 인물 수도 있다. ‘당신’에 누구를 대입해도 무방한 것은 울림 요인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김영준 시인의 ‘그네의 유배지’는 휴가철이 지난 한적한 바닷가에 세워진 그네를 노래한 작품이다. 청명한 하늘과 푸른 바다, 모든 것이 완벽한 풍경이지만 외로움과 쓸쓸함이 묻어난다. “한철 지나고 나면/ 쇠줄 같은 그리움// 드문드문 무심한 인기척에 / 사무치는 고독// 파도가 대신 울어줍니다” 시는 모두가 떠난 뒤 홀로 남겨진 그네를 마치 ‘유배’된 이의 심상에 비유했다. 누구나 한번쯤 느낄 수 있는

단절, 절정의 시기가 지난 후의 외로움을 그네에 빗댄 표현이다.

이밖에 정경고무신과 흰고무신 두켤레를 나란히 담은 변태섭의 ‘나비 당신’이 환기하는 부부의 인연, 인생의 시란고난한 길을 뜻조각해 걸어가라고 노래하는 오종희의 ‘담대하게 가라’, 가짜 열쇠를 채워 놓은 것인데 지레 포기하는 이를 향해 ‘바보’라고 말하는 조형연의 ‘속마음’도 잔잔한 울림을 준다.

한편 무등디카시촌은 문학애호가, 시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로 회원 정기전을 비롯해 5·18 청소년 디카시 공모전 등을 개최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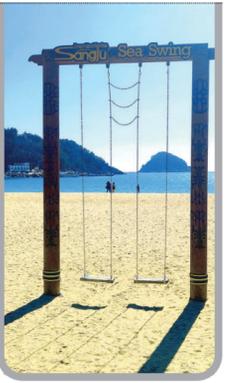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담대하게 가라

어두운 발길에
소용돌이치는 함성

혼돈의 시간 속에
가만히 짐을 내려놓으니
밝은 빛으로 펼쳐지는 저 길

오종희



▶김영준 시인 ‘그네의 유배지’

클래식 동화 ‘피터와 늑대’ 클래식 공연으로 본다

(사)아시아공연예술위 기획
14일 서구문화센터 공연장

음악 동화 ‘피터와 늑대’는 우크라이나 태생의 러시아 작곡가 세르게이 프록코피에프가 1936년 어린이들을 위해 작곡했다. 바순, 클라리넷, 플루트, 오보에는 물론 호른, 팀파니(캐틀 드럼) 등 다양한 악기를 통해 등장인물 및 동물의 특성을 실감나게 표현한 작품이다.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가 기획공연 ‘들어볼래? 클래식 동화-피터와 늑대’를 오는 14일 오후 7시 30분 서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펼친다. 용감한 피터와 숲 속 늑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로 나레이터의 해설을 곁들였다.

작품에 등장하는 사람·동물을 다양한 악기에 빗댄다는 점은 이목을 끈다. ‘작은 새’는 플루트에, ‘고양이’는 클라리넷에, ‘오리’는 오보에로 묘사한다. ‘피터’는 현악 사중주(바이올린)으로 표현하며 ‘할아버지’는 중후한 바순의 음색으로, ‘늑대’는 프렌치 호른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곡 ‘아침의 기본(페르킨트 모음곡 제1번 중)’, 모차르트 ‘오보에 협주곡 C장조 K. 314’ 등이 울려 퍼진다. 필름 국립음대 Master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 아시아심포니오케스트라 공연 장면. <아시아공연예술위 제공>

of music을 졸업한 트럼페티스트 오창훈이 연주하는 ‘하이트 트럼펫 협주곡’과 세르게이 곡 ‘피터와 늑대 Op. 67’도 레퍼토리에 있다.

지휘는 전남대 음악학과(피아노전공) 및 일 반대학원(오케스트라 지휘)을 졸업한 강재동이 맡는다. 현재 (사)카메라타전남 오케스트라 및 전남영재드림오케스트라 부지휘자, 아시아아트심포니 수석 객원 지휘자로 활동 중이다.

협연 예정인 아시아아트심포니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장현룡)는 2009년 창단해 공연예술, 교육, 문화예술권 확산을 목표로 100여회 이상 연주회를 펼쳐온 단체다.

공연 관계자는 “미국을 포함한 서구권에서는 악기 설명 등을 곁들인 ‘피터와 늑대’ 공연이 유 아가, 청소년기에 클래식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유명하다”며 “이번 공연이 어린이들의 상상력, 클래식 음악 교육 등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무료 공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현대인들에게 ‘혼밥’과 ‘외식문화’란?

ACC ‘속삭임의 식탁’·‘파인 다이닝’

혼밥, 혼술, 혼영 등... 현대인들은 혼자 삶을 영위하는 법을 안다. 혼밥과 혼술은 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닌 일상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아울러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외식문화도 변하고 있다. 외부적인 변화도 있지만 종사하는 이들의 노동 양태도 맞물려 변하고 있다.

‘혼밥’과 ‘외식문화사’를 기억과 연계한 공연 2편이 무대에 오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은 아시아콘텐츠 공연개발사업 일환으로 창작작 2편을 예술극장2에서 선보인다. ‘속삭임의 식탁’(21일~22일)과 ‘파인 다이닝’(28일~29일)이 그것.

정하나 학예사는 “‘속삭임의 식탁’과 ‘파인 다이닝’은 장르를 다르지만 혼밥, 외식문화사라는 모티브를 통해 현대 도시인들의 혼밥 양상, 직업과 외식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작품”이라며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의 의식 속에 드러워진 욕망, 기억 등을 다각도로 사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먼저 ‘속삭임의 식탁’은 ‘혼밥 현상’을 그려낸 무용극으로 ‘왜 혼자 하는 식사가 편해졌는지’ 문제의 식에서 출발했다.

무대에는 혼밥을 주제로 공연을 준비하는 모히타와 음악을 만들고 춤추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동료들은 최선의 무대를 준비하며, 공연이 끝나면 식사를 하기로 돼 있다. 그러나 모히타는 혼밥이 하고 싶어진다. 순간 바람에 떠밀려온 초대장에는 ‘혼밥의 섬 혼밥레도에 당신을 초대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작품은 한마디로 ‘혼밥’의 섬에 관객을 초대하는



‘파인 다이닝’ 공연 장면. <ACC 제공>

판타지라 할 수 있다. 송지훈 음악감독, 김일현 영상감독 등 라이브 연주와 다양한 영상이 기대된다.

‘파인 다이닝’은 한 가정의 노동사를 소개하며 ‘밥벌이의 문제’를 들여다본다. 김미란 연출가가 아버지 이야기를 토대로 희곡화했다. 한때 경양식당 주방장이었던 아버지의 노동 연대기가 외식문화, 도시화와 맞물려 펼쳐진다.

동아연극상 연기상을 수상한 배우 성노진, 하지는 이 각각 아버지와 딸로 분해 열연을 펼친다.

이강현 전당장은 “두 작품 모두 창작자와 ACC의 긴밀한 협업으로 제작했다”며 “평소에는 외식하지 못했던 혼밥, 노동, 외식 등에 담긴 사회적 의미와 개개인의 정체성 등을 식탁과 기억이라는 모티브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두 작품 입장료 각각 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의병 탄압 작전 담은 ‘진중일지’ 연구

한국학호남진흥원-진주토지주택박물관 공동

‘진중일지’는 일제강점기 일제가 우리 의병들을 진압하기 위해 작성했던 기록이다. 보병 14연대가 우리나라에 주둔 당시 기록과 의병들 활동 내역 등을 상세히 담고 있다.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홍영기, 호남진흥원)이 ‘진중일지’ 등 자료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주 토지주택박물관과 함께 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호남진흥원은 지난 31일 경남 진주 토지주택박물관에서 토지주택박물관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한 ‘진중일지’에는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우리나라 의병부대 활약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원본 자료는 토지주택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으며, 호남진

흥원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번역을 완료했다.

조일형 호남진흥원 담당 연구위원은 “‘진중일지’에는 일제가 의병을 탄압하기 위해 얼마나 기만적인 전술 등을 펼쳤는지 나와 있다”며 “당시 의병들을 밀고했던 일진 회원들의 매국 활동 등도 자세히 담겨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위원은 “의병들 활동을 엿볼 수 있는 전투는 물론 희생 당한 이들의 행적 등도 볼 수 있다”며 “국권이 강탈당했던 시기 의병들의 활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자료”라고 덧붙였다.

홍영기 호남진흥원장은 “두 기관의 협약으로 ‘진



‘진중일지’

중일지’를 비롯한 한국학 자료의 공동 연구, 정보 교류 등 한국학 관련 연구 활동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번역과 교정이 완료된 ‘진중일지’가 무사히 출판될 수 있도록 자료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문화재단, ‘남도예술은행 in 렌트’ 작품 공모

작가에게 창작 활동 동기부여를, 도민에게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주는 ‘예술은행’.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김은영·재단)이 ‘남도예술은행 in 렌트’ 작품 공모를 오는 28일(오후 6시까지) 실시한다. 선정 작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도민에게 기획 전시를 즐기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펼쳐지는 사업이다.

선정된 작가는 임대료 전액을 지원 받게 된다. 공고일을 기준으로 전남도 내에 거주하거나 전남에서 출생 또는 초·중·고·대학을 졸업한 자 중에서 개인 전 1회(또는 그룹전 5회) 이상 경험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만 39세 이하 청년예술가, 장애예술가 작품 우대)

서양화, 동양화 및 서예 등 30세 이상(2m 이내) 평면 작품을 대상으로 1인 10개까지 신청(총 66작품 내의 선정)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미술작가는 남도사이버갤러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재단은 지난 2017년부터 전남도청, 유스퀘어, 한전KDN, 나주농업기술원,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등 지역 내 주요 공공·민간 시설에서 다수의 기획전

을 진행해 왔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